

오리사 관리(舍管理) 및 오리의 사양관리 (飼養管理)



연제영 박사
수퍼피드



오리사관리(舍管理)

압사는 무엇보다도 입추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하며 새로운 왕겨로 깔집을 교체하여 주고 바닥, 벽, 천장을 깨끗이 세척, 소독하여야 한다. 물통 및 조명기구, 육추기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 건조(干潮) 및 위생관리(衛生管理)

오리는 습한 환경에 자주 접하나 체온의 유지나 휴식에 필요한 건조한 공간을 확보해 준다.

2 급수관리(汲水管理)

모든 가축사양에 있어서 깨끗한 식수공급은 중요하다. 또한 오리의 경우 혹서기에 수욕장은 필수는 아니나 성장 및 효율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.

3 사료급여(飼料給與)

적절한 사료의 급여형태 및 급여량은 사료의 허실을 줄여 비용손실을 줄인다.

4 질병(疾病) 및 차단방역(遮斷防疫)

사전 예방접종 및 질병요인을 차단하여 손실을 최소화한다.

입추와 육추

1 입추

오리의 사육은 다른 가금류에 비해 관리가 어렵지 않으나 다만 우수한 품질의 초생추의 구입이 일반적으로 농가의 수익을 좌우한다.

출하일령 6~7주에 체중 3kg이상 수준의 유전형질을 가진 새끼오리를 구입하도록 한다.

2 육추

오리의 경우 아직 국내 오리사 기준이 없어 대부분 육계사형태의 계사에서 사육을 하고 있다. 다만 오리의 경우 체질이 강하여 대부분의 형태의 계사에서 사육이 가능하므로 간이 압사의 경우도 통풍, 건조 및 위생관리만 잘하여 준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사육이 가능하다. 새끼오리의 육추는 일반 육계사육과 별 차이 없으며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나 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사양관리

1 첫모이급여

갓 부화된 오리는 난황흡수가 빠르므로 부화 후 20시간 내에 첫모이를 주도록 한다.

첫모이를 주기 전에 물을 충분히 먹게 하고 사료통과 물통의 거리를 가깝게 배치하여 손쉽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. 첫모이는 가능한 가루나 크럼블 등 손쉽게 섭취 가능한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좋다.

2 급수관리(汲水管理)

언제나 신선한 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 초기 7일간은 울타리 안에 영양물통을 200수당 1

개씩 넣어준다. 영양물통은 부화장에서 농장으로의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조기에 해소하여 준다. 약품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희석 공급하여야 한다.

3 깔짚관리

깔짚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좋은 깔짚은 가볍고 수분흡수를 잘하며 빨리 건조가 되는 것을 말한다.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왕겨 및 톱밥을 5cm 두께로, 그 후에는 벧짚이나 보릿짚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왕겨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.

오리는 물을 좋아하며 다량 섭취하여 바닥이 잘 젖고 습해지므로 자릿짚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. 매일 소량 깔짚을 보충하여 준다.

4 온도 및 습도, 환기관리(溫度, 濕度, 換氣管理)

오리를 육추함에 있어서 초기 2~3주가 가장 중요하며 온도와 습도, 환기는 오리의 초기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. 처음 1주간은 32~35℃ 정도의 온도를 유지

하여야 한다. 그 후 1주일에 3~5℃씩 온도를 내려주어 3주 후 난방을 중단하며 그 후에는 압사내 온도가 5℃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난방하여 준다.

육추하는 계절에 따라 난방을 중단하는 시기가 다른데 실내온도가 실외온도와 비슷할 때 난방을 중지하면 된다.

습도는 60~70%가 적당하며 만일 온도가 높고 환기가 불량하면 병아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 또한 오리는 한 곳에 뭉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육추기에 밀집에 의한 폐사를 방지하여야 한다.

5 점등관리

처음 1주간은 24시간 점등하여 새끼오리들이 사료와 물을 섭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며 2주부터는 자연일조시간과 점등시간을 합쳐 15~18시간 정도로 유지한다. 조명의 밝기는 20룩스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.

